

당명도 투표용지도 헛갈리는 비례정당...유권자 혼란

급조 신생 군소정당 난립...총선 참여 비례정당만 35개 투표용지 길이 역대 최장 48.1cm, 100% 수개표 불가피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정당이 무려 35개에 달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비례용 정당도 포함된 급조 신생 군소 정당이 난립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름의 정당이 적지 않은 데다, 과거 거대 정당이나 주요 정당의 이름을 차용한 경우도 많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51개 정당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모두에 참여하는 정당은 15개,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20개다.

정당(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는 비례 후보자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신 기호 3번 민생당이 첫 번째 칸을 차지했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정당 투표용지의 순번은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생당 소속 의원은 19명이다.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민주당(5번), 정의당(6번), 우리공화당(7번) 등 현역 의원이 많은 순으로 번호를 부여 받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의원 꺾주기'를 통해 급조한, 사실상 비례용 정당인 '위성정당'으로 불린다. 동일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 실시된 총선의 정당 득표수를 따진다. 이에 따라 의석수가 1석으로 같지만 20대 총선에 참여했던 민중당이 8번을 받고 한국경제당(9번)과 국민의당

(10번), 친박신당(11번), 열린민주당(12번) 등은 추첨을 통해 나머지 순번이 정해졌다.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그 이후 기호를 받았다.

비례대표 정당에는 새누리당(28번), 자유당(31번), 통일민주당(35번) 등 과거 거대 정당이나 주요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다. 자유당은 강력한 국토안보법 입법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 수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통일민주당은 전 국민 의료보험료 제로, 종교부 신설, 보훈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의 정체성을 당명에 담은 여성연대(29번), 자영업당(33번), 충청의 미래당(34번), 한국복지당(36번)도 눈에 띈다. 여성연대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주요 공약으로, 자영업당은 '자영업자 권익 향상'을 기치로 내걸었다. 충청의 미래당은 충청권 도약을 목표로, 한국복지당은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친환경과 기후-에너지 문제 등을 내세운 가자 환경당(15번), 녹색당(23번) 등 환경 정책 중심의 정당도 포함됐다.

당명이 비슷한 정당도 많다. 대한당(24번)은 국회의원 정수 120명으로 축소 및 명예직화를, 대한민국당(25번)은 둔격정 없는 복지 천국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 새벽당(32번)은 한미동맹 재정립 및 강화 등 안보에 중점을 뒀다.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정당 기호를 16번으로 받았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35개로 확정되면서 투표용지 길이는 48.1cm가 될 예정이다. 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 도입 이래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에 따라 용지는 분류기



더불어시민당 총선 후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후보자 및 당원들이 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비례대표 선출용 정당투표지 기재 순서

3	민생당	4	미래한국당	5	더불어시민당
6	정의당	7	우리공화당	8	민중당
9	한국경제당	10	국민의당	11	친박신당
12	열린민주당	13	코리아	14	가자!평화인권당
15	가자환경당	16	국가혁명배당금당	17	국민새정당
18	국민참여당	19	기독교자유통일당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21	남북통일당	22	노동당	23	녹색당
24	대한당	25	대한민국당	26	미래당
27	미래민주당	28	새누리당	29	여성연대
30	우리당	31	자유당	32	새벽당
33	자영업당	34	충청의미래당	35	통일민주당
36	한국복지당	37	홍익당		

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cm를 초과, 100%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정관계자는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비례대표 의석이 1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외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만큼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갈 것이고, 기존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정의당과 민생당, 국민의당, 민중당 등이 그나마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젓빛 일상 속 기적처럼 만개한 목련꽃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7) 봄 나무



김원숙작 '봄 나무'

"작은 마당 하나 가질 수 있다면/기 작은 목련 한 그루 심고 싶네/그리운 사월 목련이 등불 켜는 밤이 오면/그 등불 아래서 그 시인의 시 읽고 싶네..." <정일근 작 '깨끗한 슬픔' 중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며 힘겨운 피난생활을 하던 박완서 작가(1931-2011)는 자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장독대 앞에 서있는 목련의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애가 미쳤나봐"하는 경악의 소리를 내뿜는다. 작가 자신이 나무가 되어 긴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인간이 저지른 전쟁이라는 '미친' 짓을 목격하고 내지는 비명이었다. 처참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극단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름끼치는 정물이었을까.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세상이 모두 젓빛으로 뭉쳐 선 듯 하는데도 계절은 속절없이 찾아와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잎이 돋아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덕분에 온 세상이 꽃대결이 이기지 않는다. 힘겨운 시련을 이겨낸 봄의 웅장함이 위대해 보이는 까닭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시절이 되었다. 피폐해진 일상일랑 아랑곳하지 않고 때 되면 오고 가는 자연의 섭리가 다만 무심할 뿐이다. 김원숙작가(1953~)의 '봄 나무'(2008년 작)는 화가가 눈이 내려앉은 마른 가지들을 부둥켜안고 있는데 그 차가운 눈이 모두 하얀 꽃들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고 "애가 미쳤나봐"하는 경악의 소리를 내뿜는다. 작가 자신이 나무가 되어 긴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인간이 저지른 전쟁이라는 '미친' 짓을 목격하고 내지는 비명이었다. 처참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극단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름끼치는 정물이었을까.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세상이 모두 젓빛으로 뭉쳐 선 듯 하는데도 계절은 속절없이 찾아와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잎이 돋아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덕분에 온 세상이 꽃대결이 이기지 않는다. 힘겨운 시련을 이겨낸 봄의 웅장함이 위대해 보이는 까닭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달아오른 비례의석 쟁탈전...시민당 "25석" 미래한국 "26석" 열린민주 "17석"

정의·국민의당 20% 득표 목표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역대 어느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쟁탈전이 뜨거울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고 나선 정당은 35개나 된다. 이들 정당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는 312명이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6.6 대 1의 경쟁률이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

표 의석을 대부분 나눠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민당은 범여권의 표심을 최대한 결집해 17~25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민당에 참여한 민주당은 자당에서 파견한 영입 인재 후보들을 총 30명의 후보 중 후순위(11번 이후)에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두 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한몸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민주당은 1일 경기도당 연석회의와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2일 시민당 선거대책위원

회 출석식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여권 내 '진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담겠다고 나선 상태다. 미래한국당은 투표용지 2번째 칸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39명의 후보를 냈고, 목표 의석은 26석을 제시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원 팀 선거운동'에 나선다. 당색을 통합당의 '해피핑크'로 삼았고, 통합당과 정책-선거연대도 한다. 두 당은 2일부터는 공동유세에 나선다. 투표용지 맨 위 칸에 오른 민생당은 2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이 가운데 10명의 당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정당투표에서 '최소 20% 득표'가 목표다. 정의당은 29명, 국민의당은 26명의 후보 명단을 적어냈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 1석+알파(α)' 가장 아래 20% 득표를 통해 비례대표에서 최소 11석, 많게는 17~18석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 진입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한다. 불출마한 안철수 대표가 이날부터 '400km 국토 종주'로 진정성을 호소할 전략이다. 이들 정당이 목표로 제시한 비례대표 의석만 모두 더해도 100석을 넘는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